

- 주요 뉴스: 미 연준 주요 인사, 블랙아웃 기간 앞두고 금리 0.25%p 인상 시사
 - 국제통화기금(IMF) 게오르기예바 총재, 세계경제 전망 개선 가능성 거론
 - 유럽중앙은행(ECB) 라가르드 총재 등, 고강도 통화긴축 기조 유지 강조
 - 영국 12월 소매판매, 성탄절 특수 불구 생활비 상승으로 전월비 감소
 - 국제금융시장: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불구 빅테크 구조조정으로 위험회피 완화
 미국, 주가 상승[+1.9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9bp]
 - 주가: 미국 S&P500은 경제지표 부진 불구 기술기업(구글) 감원 계획 발표로 급등
 유로 Stoxx600은 ECB 통화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유입으로 반등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유로존(긴축)·일본(완화)의 상반된 통화정책 입장 표명 속 혼조
 유로화 가치는 0.2% 상승, 엔화 가치는 0.9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추가 금리인상 여지 및 낙폭 과다 인식으로 반등
 독일 등 유로존 국채금리는 ECB 라가르드 총재의 고강도 통화긴축 강조로 급등
- ※ 원/달러 1M NDF 환율(1230.6원, -3.7원) 0.3% 하락, 한국 CDS 1bp 하락

		1/20일	1/19일	전일대비			1/20일	1/19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972.6	3,898.9	1.89%	국채 금리 10y	미국	3.48%	3.39%	9bp
	유럽	452.12	450.45	0.37%		독일	2.18%	2.07%	11bp
	중국	3,264.8	3,240.3	0.76%		영국	3.38%	3.28%	10bp
	일본	26,554	26,405	0.56%	CDS 5y	한국	41bp	42bp	-1bp
	한국	2,395.3	2,380.3	0.63%		중국	52bp	52bp	0bp
	달러지수	101.99	102.06	-0.06%	위험 지표	EMBI+	-	372	-
유로화	1.0856	1.0833	0.21%	VIX		19.85	20.52	-3.27%	
환율	엔화	129.60	128.43	-0.91%		WTI유	81.31	80.33	1.22%
	위안화	6.7927	6.7755	-0.25%	원자재	구리	425.15	423.15	0.47%
	원화	1,235.5	1,232.1	-0.28%		금	1,926.1	1,932.2	-0.32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 연준 주요 인사, 블랙아웃 기간* 앞두고 금리 0.25%p 인상 시사

* FOMC 회의(금번은 1.31~2.1일) 10일 전부터 통화정책 발언을 자제하는 기간

- 월러 FOMC 위원,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는 좋은 소식이지만 적어도 여름까지 반등을 경계할 것을 강조. 연준 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제약적 수준에 근접했지만 2.1일 FOMC에서 0.25%p 추가 인상을 선호한다고 언급. 연준 보유 자산 축소는 GDP 대비 10~11% 근접 시 감속할 것이라고 부언
-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, 연준은 금년 중 정책금리를 수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에 0.75%p씩 올리던 시기는 확실히 지났으며 앞으로는 회당 0.25%p씩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국제통화기금(IMF), 세계경제 전망 개선 가능성 거론

- 게오르기예바 총재, 현재 세계경제 전망이 수개월 전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나쁘지 않다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국의 잠재력을 주된 개선점으로 지목. 다만, 현재의 '23년 전망치인 +2.7%에서 극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부언

■ 유럽중앙은행(ECB), 고강도 통화긴축 기조 유지 강조

- 라가르드 총재,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원자재·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, 물가 상승이 정점*에 이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

* 독일 연방통계청(Destatis), 12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 21.6%_{yoY} 상승했으며 전월(+28.2%) 대비 큰 폭 둔화

- 홀츠만 정책위원,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(에너지·식품 가격 제외)은 여전히 5%대에 머무르고 있어 금리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'23년 상반기 중 적어도 두 차례의 자이언트 스텝(정책금리 +0.5%p)을 예상

■ 영국 12월 소매판매, 성탄절 특수 불구 전월비 감소

- 통계청(ONS), 12월 소매판매가 전월비 1.0%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, 11월에는 소비자들 성탄절을 앞둔 선제적 식품 비축 등으로 판매가 증가했으나 12월에는 우편 파업에 따른 온라인 판매 위축 및 생활비 상승으로 다시 감소했다고 설명

■ 스웨덴 중앙은행, 전기 가격폭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

- 브레멘 부총재,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한 징후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격 급등으로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. 한편,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하고 있는 코로나화 약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

■ 인도 외환보유액, 5개월래 최대 수준으로 증가

- 인도 중앙은행(RBI), 주간 통계 고시를 통해 1.13일 외환보유액을 \$5,720억으로 발표. RBI의 외환시장 개입 순매수 전환(22년 11월) 등으로 단기 저점(22년 10월 21일, \$5,245.2억) 대비 \$474.8억 증가한 수준이며 '22년 8월 이후 최대 규모

■ 중국인민은행(PBoC), 주요 정책금리 5개월 연속 동결

- 대출우대금리(LPR, 주택담보대출 벤치마크) 1년물은 3.65%, 5년물은 4.30%로 동결. Reuters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춘절 연휴 임박, 앞선 중기유동성지원창구^{MLF} 금리 동결(1/16일, 2.75%), 새 주택담보대출 금리 메커니즘 적용 등을 동결의 배경으로 지목하면서, 이르면 2월 금리 인하 가능성(Capital Economics)이 있다고 보도

■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, 31년래 최대 폭 기록

- 총무성, 12월 소비자물가(CPI)가 전년동월대비 4.0% 상승한 것으로 발표. 9개월 연속 일본은행(BOJ)의 목표치(+2.0%)를 상회했으며 '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. 교도 통신은 '22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압력이 컸지만 현재는 식품 가격 상승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

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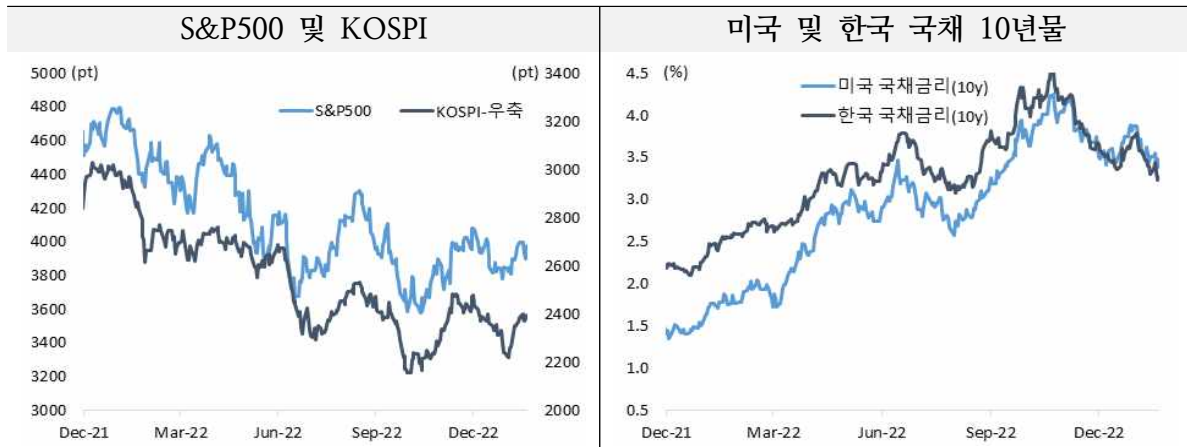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/2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12월 기존주택판매(건): 402만, 11월(408만), 예상치(395만)
- 영국 12월 소매판매(전월비): -1.0%, 11월(-0.5%), 예상치(+0.5%)
- 일본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: +4.0%, 11월(+3.8%), 예상치(+4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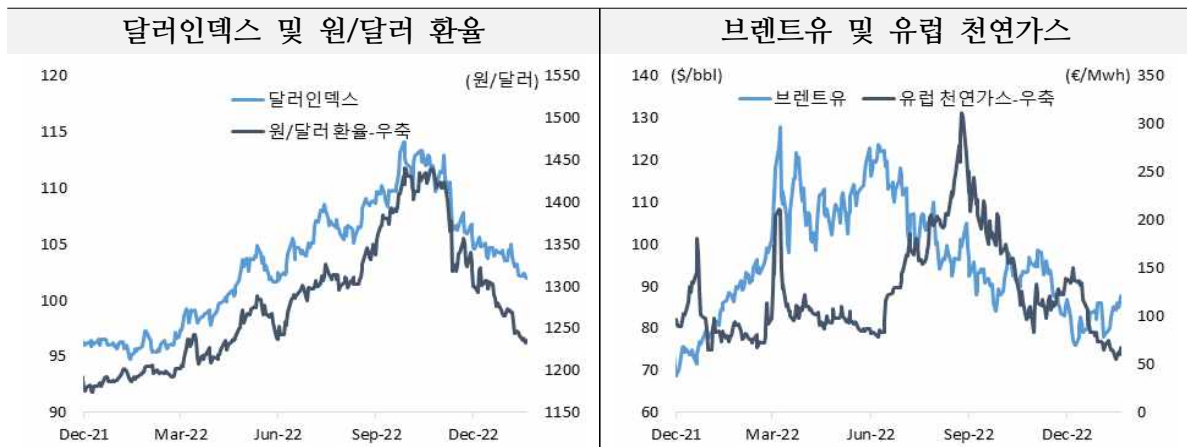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/23 현지시각 기준)

- 유럽중앙은행(ECB) 라가르드 총재(도이체보르제^{증권거래소} 연설) 및 파네타 정책위원(유럽 의회 연설)의 통화정책 발언, 일본은행(BOJ)의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의사록 공개
-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선행지수, 유로존 1월 소비자신뢰지수 발표에도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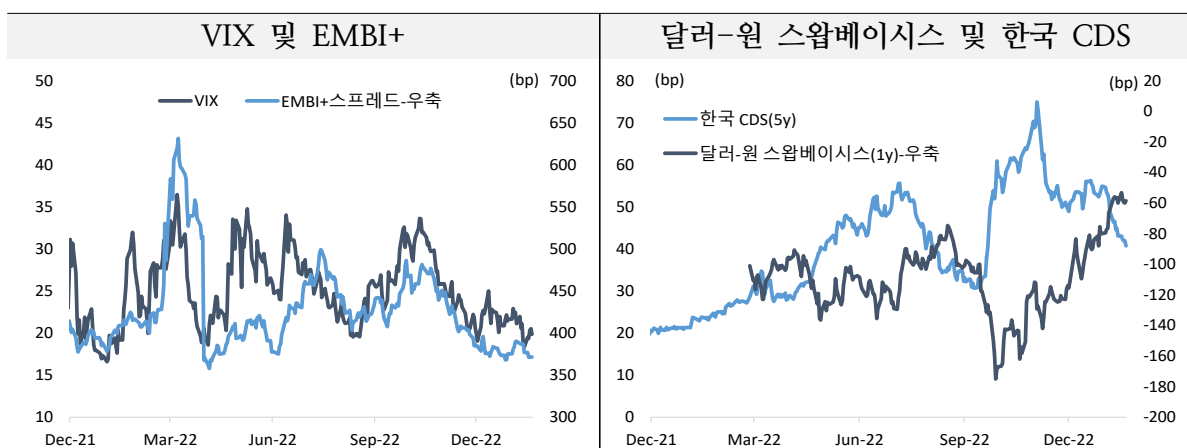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